

석화업계, 업황 부진에도 진격... 가동률 조정 등 대응 총력

경기침체에 수요 부진 지속
하반기 실적 불안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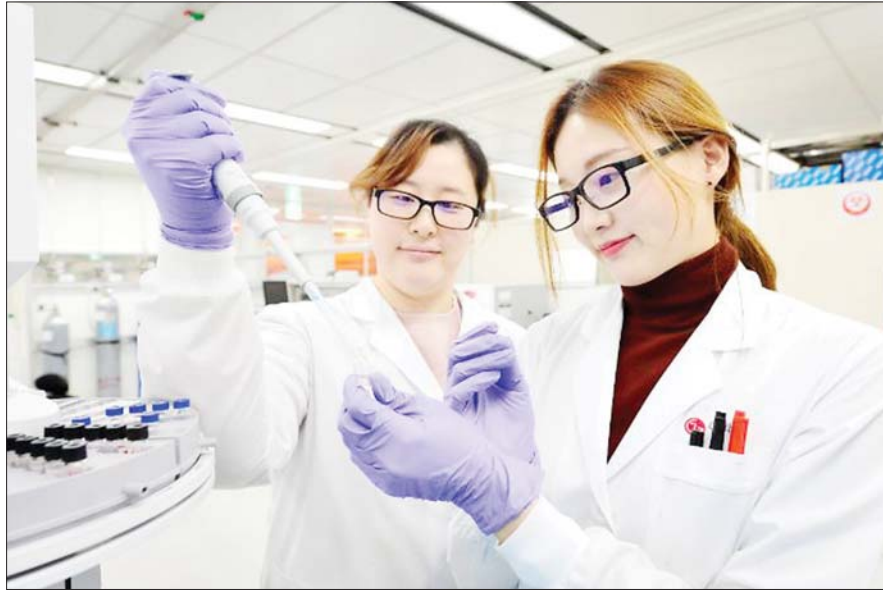
업계, 실적 방어 팔 건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설비 투자, 인재채용 강화

수익성의 급격하게 악화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하반기 실적 반등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석유화학업계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보와 역량 있는 인재 확보에 집중하며 설비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하반기 실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여전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액까지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하반기 업황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제품가에서 원가를 뺀 에틸렌의 스프레드의 가격은 이달 세 번째 주 기준 톤(t)당 108달러, 한화로 약 14만5044원까지 떨어졌다. 에틸렌은 원유에서 추출한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이라 불리고 있고, 에틸렌 스프레드는 석유화학업계의



LG화학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의 성질과 성능을 검사하고 있다. /LG화학

핵심 수익지표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락한 에틸렌 스프레드 가격은 110달러를 기록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에틸렌과 나프타의 톤(t)당 가격은 각각 830달러, 669.5달러다. 이에 따른 에틸렌 스프레드는 160달러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인 t당 300달러를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며 초고유가 사태는 면했지만 세계적 기준급리 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석화업계의 하반기는 어두운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중국 도시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도 석유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수요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증권업계도 석유화학업계의 하반기 예상 영업이익을 낮췄다. 증권가는 LG화학의 3분기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대비 78%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이 각각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사들도 이와 같은 현상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가동률을 떨어뜨렸다. 코로나19 특수로 100% 가동했던 NCC 가동률을 일제히 80%대 초반으로 낮췄다. LG화학의 경우는 80%까지 NCC 가동률을 낮추며 오는 9월부터 NCC의 정기보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설비 부문의 투자는 공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미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에만 3조9457억원을 집행했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설비투자액인 2조6122억원과 비교하면 51%가량 많아졌다. LG화학은 지난 30일 충남 대산공장에 연산 3200t 규모의 탄소나노튜브(CNT)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CNT는 전기와 열전도율이 구리·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차세대 소재로 해당 공장이 완공되면 LG화학의 CNT 생산능력은 연간 총 6100t으로 확대되며 국내 1위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롯데케미칼은 차세대 소재 시장을 투자를 단행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의 현지 합작사 '롯데알미늄머티리얼즈USA'를 통해 2억4449만달러를 들여 미국 캔터키주에 양극박 생산공장을 2025년까지 짓는다. 양극박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소재로 쓰인다. 롯데케

미칼은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소재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내 4대 화학사로 불리는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금호석유화학 등은 어두운 업황에도 꾸준한 인재 채용으로 대응했다. 특히 석유화학사 체질 전환과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인재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의 직원 수는 6월말 기준 4645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5명 늘었다. LG화학의 직원 수도 1만4319명으로 1년 전(1만2994명) 대비 1325명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첨단소재 688명, 석유화학 591명, 생명과학 63명을 채용했다. 가장 채용단위가 큰 첨단소재 부문은 커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초 신화학 LG화학 부회장이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LG화학에 방문했을 당시 "전지 소재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 배터리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들을 실행할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3대 신사업 중 하나로 꼽고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직접 LG화학의 대표적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인 'BC(business&campus)투어'를 이끌며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韓 석화산업 경쟁력, 美·日·中보다 취약... 선제 대응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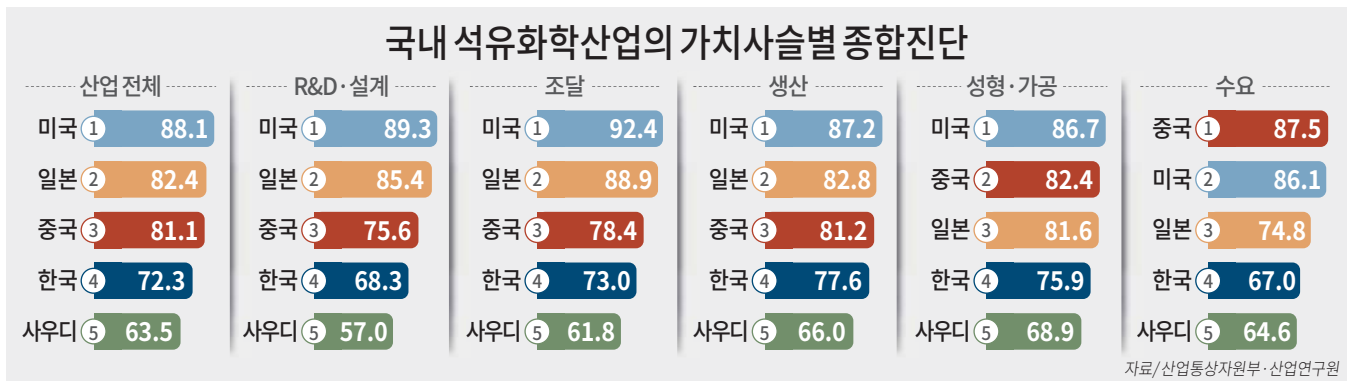
경쟁국 대비 제도·인프라 뒤쳐져
탄소중립 생산기술 개발 전략 구축
정부 규제 완화, 신사업 모색 필요

탄소중립이 화두가 된 환경 속에서 주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치사슬을 식별하고, 각 단계별 경쟁우위를 주요국과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 보고서에는 석화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고부가제품 생산비중 증대와 탄소중립형 생산기술 개발 전략 구축,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가치사슬은 제도·인프라, 수요부문이 취약한 반면, 생산부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 합성수지(PE, PP) 가치사슬 내 개발과 생산 경쟁력에서 중국 대비해 비교 우위를 점했지만 합성원료(TPA), 합성고무(BR) 가치사슬 전 부문에서 중국에 비교 열위로 평가됐다. 조용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 다각화를 통한 사업구조 전환, 탄소중립 신사업 대응과 함께,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제품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단절 문제와 주요 수출시장 내 신흥국과의 경쟁 격화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몇 년 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화학제품 공급망 내 여러 부문에서 병목·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후방산업 주도로 생산시설 수직계열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가스 기반의 중동산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 글로벌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산 범용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가치사슬은 순차형(snake) 구조로 연구개발, 조달, 생산, 성형 및 가공, 수요로 구성된다. 이번 경쟁우위 평가 대상인 4대 석유화학 범용제품(PE, PP, TPA, BR)은 모두 가격경쟁력이 핵심 경쟁우위 원천으로 꼽혔다. 보고서에는 "동 제품들은 제품별 물성(grade)이 다양하고 글로벌 시장 내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해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가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밸류체인은 소재(나프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생산시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 생산 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생산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큰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높은 생산기술 수준을 갖춰 경쟁 우위를 점했다.

다만 한국은 대기업 차원의 기술개발과 생산역량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보다 우수했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화사들은 공급망 안정성이 높고 전방산업 니즈에 대응한 성형 및 가공 관련 생산기술의 경쟁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은 전반적으로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취약하다고 평가됐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부가제품의 생산비중을 높여 제품 다각화에 힘쓰고 탄소중립형 생산기술 개발 전략과 함께 규제완화와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달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 지원 ▲기후변화 협약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교류 지원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의 선제적 적용을 제시했다.

조용원 연구위원은 "국내 석화산업의 구조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석유계 원료 전환을 포함한 혁신적 기술들이 도입됨과 동시에 친환경 경제품의 시장점유율도 확대돼야 한다"며 "생산방식 변화에 대응해 기존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적용되던 환경 관련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한시적으로 정책의 도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친환경 화학제품을 포함시킴으로써 초기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활동들은 정부가 국내 석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향후 민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

>> 1면 '생산·소비·투자'서 계속

“소비회복 흐름세지만 경기 불확실성 커져”

어 심의관은 "화장품의 경우 중국 봉쇄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방역 조치 해제로 가정 내 외식이 증가하면서 음식료품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6.9%),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홀로 선방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여가(7.3%)와 숙박·음식점(4.4%), 도소매(0.8%), 운수·창고(0.8%), 보건·사회복지(0.3%) 등이 증가했다.

어 심의관은 "소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숙박·음식점이나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반적 회복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성장둔화·금리인상 등 대외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